

# 立齋 鄭宗魯의 한시 연구

이 향 배\*

## 차례

- I. 서론
- II. 입재의 문학 이론
- III. 입재의 시세계 분석
  - 1. 도학세계의 형상화
  - 2. 白雲에 의탁한 시적 표상
  - 3. 산수 유람의 흥취와 사고
  - 4. 전원에서의 삶과 기록
- IV. 결론

## 【국문초록】

조선후기 영남 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쳐준 입재 정종노는 한시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입재는 도가 실린 문장을 중시하여 문학의 기초를 학문에 두고 있었다. 입재는 뜻의 전달이라는 문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사실주의적 서술을 강조하였다.

성인의 도를 추구하여 위기지학에 충실한 입재는 후학들에게 도를 전달할 책 임감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한시를 통해 후학들에게 학문에 힘쓰는 차제를 명확하게 밝혀주었는데 本源의 涵養, 慎獨, 格物의 공부 순서를 제시하고 있었다.

입재 시에 나타난 백운은 감상의 대상물이면서 다양하게 상징하였다. 백운은 탈속의 경계에 있는 자신의 거처를 상징하기도 했으며 자신은 물론 친구를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백운시 34수를 분석하여 입재가 구름을 통해 다양한 의미망을 형성하여 자신의 추구하는 도의 세계를 비유적으로 상징하였다.

---

\* 충남대학교 교수

입재는 평소에 여행기록을 읽으면서 상상으로 遠遊를 즐기곤 했다. 산수 유람을 좋아한 그는 승지를 두루 유람하면서 많은 유람시를 남겼다. 이 시는 산수를 실경 그대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뜻을 붙이는 방식으로 쓰였다. 또한 입재는 이학적 사유 속에서 산수를 바라보고 논란을 벌이고 있었다.

입재의 전원시에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강호자연에서 도를 즐기는 초탈한 선비로서의 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었다. 입재는 감흥이 일면 담박한 수사로 경치를 읊기도 했으며 농촌의 생활상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 주제어

입재, 정종노, 사실주의적 서술, 본원의 함양, 신독, 격물, 도, 백운, 산수 유람, 전원, 농촌의 생활상, 실경, 세속적, 상징

## I. 서론

18세기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선비 중의 한 분이 바로 立齋 鄭宗魯(1738, 영조 14~1816, 순조 16)이다. 입재는 조선 중기 서애 유성룡의 제자로서 학덕이 높은 愚伏 鄭經世의 후손이다. 그는 가학을 바탕으로 학문을 탐구하다가 영남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大山 李象靖과 百弗菴 崔興遠에게 수학하였다. 당대에 덕망이 높은 학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정도로 학문적인 명성이 대단히 높았던 입재는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여 이후 영남 유학의 전개에 대단히 영향을 끼쳐준 학자이기도 하다.

대개 선비가 학문을 닦는 이유는 장차 세상에 나가 도를 펼치려는데 목적이 있다. 입재도 선비로서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려는 뜻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귀공명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으므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에 노론이 정권을 장악하여 영남 유림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입재에게는 몇 차례 천거를 받아 관직에 진출할 기회가 있어서 마지못해 관직에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곧바로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와서는 학문 탐구에 전념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입신 출세보다는 도의 탐구에 대한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이었다.

입재가 비록 문학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도학을 바탕으로 한 그의 문장력은 당대에 인정을 받았다. 현재 전해오는 그의 문집은 원집 48권 24책, 별집 9권 4책으로 총 57권 28책이다. 그 중에 원집의 1권부터 7권까지, 별집의 1권에는 모두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시체가 다양하고 내용도 풍부하다. 이 시에는 도학적 사고와 산골 생활 또는 여정에서 보고 느낀 감정이 잘 묘사되어 그의 인품과 풍류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입재 시는 일반적인 시인들의 그것과는 풍격이 다르다. 성리학적 사고에 기초하여 문학 이론을 확립하고 전원 속에서 이는 감흥과 도를 추구하는 선비로서의 삶과 사유를 가식 없이 진솔하게 시로 읊었기 때문이다. 시가 성정을 읊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입재의 시에 나타난 성정미학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입재의 생애<sup>1)</sup>나 성리학<sup>2)</sup>에 대해 다루어졌으나 그의 시문학에 대한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3)</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입재의 문학 이론을 살펴보고 입재 시에 대해 분석하여 특징을 밝혀보기로 한다.

1) 崔在穆, 「立齋 鄭宗魯의 생애, 성리사상, 문제의식」, 『동방한문학』 25. 2002.

2) 劉明鐘, 「立齋 鄭宗魯의 太極動靜說」, 『朝鮮後期性理學』, 대구: 이문출판사, 1985.

李世東, 「立齋 鄭宗魯의 經學과 經學觀」, 『동방한문학』 25. 2002.

3) 朴英鎬, 「立齋 鄭宗魯의 삶과 文學 世界」, 『동방한문학』 25. 2002.

## II. 입재의 문학 이론

입재의 문학 이론은 일반 성리학자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리학자들은 이학적 사고에 기초하여 문학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道本文末論의 기초 위에서 문학 이론을 피력한다. 도학에 비해 문학을 천시하는 사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도와 문을 관계지어볼 때 도가 근본이고 문이 말이라는 논리일 뿐이다. 이는 도와 문을 분리하여 별개로 보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로 파악한 견해이다.

문학에 대한 입재의 견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입재는 〈鄭新堂先生實紀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득 이른바 언어와 문장은 도덕의 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도덕이 내면에 충실하면 영화는 진실로 겉으로 발현되므로 이 두 가지는 본말과 경중의 나뉘미 있다. 근본으로 무거운 것이 이미 있다면 가지로 가벼운 것이 비록 없더라도 어찌 상심하겠는가.<sup>4)</sup>

언어와 문장이 바로 도덕의 영화라는 논리는 도본문말의 관점에서 나온 말이다. 도덕이 내면에 충실하면 영화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이며 문장이다. 이는 기존 성리학자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도덕을 중시하는 사고를 가진 입재는 문학보다는 학문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그는 “문장과 도학은 본래 두 가지가 아니다. 학문을 하여 공부가 박학, 심문, 신사, 명변의 경지에 도달한다면 이치가 순이하고 문사가 통달하는 문장을 기약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sup>5)</sup>라고 했다. 입재가 도학과 문학을

4)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 26, 「鄭新堂先生實紀序」, 抑所謂言語文章者, 不過道德之英華也, 道德充盛於內, 則英華固發見於外, 而斯二者亦有本末輕重之分, 本而重者既存, 則末而輕者雖無, 亦何傷乎.

5) 鄭宗魯, 『立齋先生別集』 卷9, 附錄 「言行錄」, 府君嘗曰, 文章道學, 本無二致, 爲學而工

한 가지 일로 간주하고 학문을 문학의 근본으로 파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를 문학의 근본으로 본 입재는 단순히 수식만 일삼는 문학에 힘쓰기보다는 학문에 힘쓰기를 강조하였다. 입재는 〈答黃叔瓚〉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개 그대의 문사는 소재가 이미 넓고 글 짓는 솜씨도 여유가 있어서 진실로 가슴 속의 말을 쓰려고 한다면 미묘한 마음을 어찌 형용해내지 못하겠는가마는 입언에서 중요한 것은 문에 도를 신는 일이네. 이처럼 오랫동안 쌓고 식견도 이미 정밀해진다면 장차 하는 말마다 도에 가깝고 그 문장도 제일 대가의 반열이 되리라. 簡易의 무리들처럼 굳이 다시 하나의 문예에 전공하지 않아도 저절로 평보로 그 위로 올라가리라. 훗날 세상에 등용되어 큰 문장을 쓰고도 임금의 책략을 빗냄이 어찌 한갓 문장가에 비할 수 있으랴.<sup>6)</sup>

입재는 입언할 때 문에 도가 실려 있어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학문을 쌓아 식견이 정밀해지면 하는 말도 도에 가까워서 문장도 대가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간이 최립처럼 문예를 전공하지 않아도 그 수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도문일치를 주장했더라도 문학의 형식적인 요소도 알아야 한다는 퇴계 이황이나 우암 송시열과 같은 성리학자의 논리와는 약간 다른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문학을 전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문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가 “문이란 도를 신는 그릇이지만 문이 아니면 형용하여

夫到博學審問愼思明辨之境，則理順辭達之文，不期而成章矣。補遺

6)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 13, 「答黃叔瓚」, 大抵左右之於文詞, 其材已博而游刃又恢, 苟欲寫胸中之言, 則心之微妙, 何所不形容之. 所貴乎立言者, 以其文之能載道耳. 如是積累之久, 識解既精, 則將見言之幾乎道, 而其文方爲第一家數, 不必更求於專攻一藝, 如簡易輩, 而自當平步以出其上頭矣. 他日見用於世, 其所以鋪張鴻藻, 潤色皇猷, 又豈徒有文章者之比哉.

설명할 방법이 없다.”<sup>7)</sup>고 말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재가 문학보다 학문을 중시한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문학에 전념하다가 병폐에 빠질까하는 우려를 들 수 있다. 과거와 문학에 힘쓰는 신필권의 심리를 뚫어본 입재는 그에게 科擧와 문학에 대한 생각을 말해준다. 먼저 입재는 과거를 도모하고 문장에 힘쓰는 신필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필권이 과거를 도모하는 이유는 문장을 이루더라도 과거에 급제하여 신분이 귀해지지 않으면 당세에 이름을 떨쳐 후세까지 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두문불출하고 문장에 힘써서 독자적인 경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런 신필권의 태도에 대해 입재는 ‘名利’ 두 글자로 그의 병통을 지적했다. 과거급제는 일시적인 이익을 구하는 일이며 문장은 죽은 뒤의 명성을 구하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內外, 輕重의 기준으로 볼 때 힘을 다해 종사할 일도 아니며, 게다가 과거급제를 통해 문장에 대한 명성을 구하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입재는 강력하게 이를 비판하면서 작자가 후세에 유명해지는 여부는 문장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을 뿐이지 과거 급제를 통해 유명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sup>8)</sup>

입재는 필력이 지극해져서 문학이 경지에 이른다면 爵祿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무시를 당하더라도 천년 뒤에 이를 알아주는 문장가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록을 통해 당세에 유명해지더라도 마치 근원

7) 鄭宗魯, 『立齋先生別集』 卷9, 附錄「言行錄」, 嘗論學顧謂季弟曰, 文者載道之器, 非文無以形容說道理

8) 鄭宗魯, 『立齋先生別集』 권 2, 「答申審甫 必權」, 蓋座下之病無他, 只是名利二字爲其主症. 何者. 科第是一時之利, 文章又不過爲身後之名, 斯二者揆諸內外輕重之分, 本非極力從事之物, 而至欲藉科第之利, 以求助文章之名, 則其見又大謬矣. 古來作者之名於後世者, 顧其文章如何耳, 豈待科第而後顯乎.

없는 물과 같아서 후세에 명성을 전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문장도 儒家의 정대한 志業으로 헤아려보면 餘事일 뿐이었다.<sup>9)</sup>

그렇다고 하여 입재가 문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입재가 한 때 문장공부에 힘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알 수 있다.

젊었을 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학문은 비록 의리를 주로 하더라도 만약 문장이 없다면 그 뜻을 말해 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여 드디어 경전과 정자 주자의 글 이외에 제자백가를 익숙히 읽었다. 문장을 지을 때 반드시 뼈격대어 읽기 어렵게 했다. 홀연히 다시 생각하니 매우 가소로운 일이었다. 우리 유가의 문법이 어찌 일찍이 구두를 힘하게 한 것이 있던가. 이에 그전에 공부한 것을 모두 버리고 평실하기에 힘썼으니 이것이 전후의 편지가 다른 이유이다.<sup>10)</sup>

입재가 경전과 정주의 글 이외에 제자백가의 글도 아울러 공부한 것은 뜻의 전달이라는 문의 효용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젊었을 적에는 험박한 문체를 쓰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문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평실한 문체를 쓰려고 노력했다. 문장에 대한 관점이 문학 중심 사고에서 유학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면서 평실한 문체를 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입재의 문장이론은 사실주의적 서술을 강조하였다. 그는 “문장의 묘는 대부분 짓는데 달려 있다.”고 하면서 “가령 붓을 잡고 이 나무를 형용할

9) 上同。惟其筆力已至，故鮮不破的於功令之文，而用韋布流聲名者，亦不爲少，誠使吾文果成章，而無愧於古人，則雖或以祿位之無，而見輕於一時，千載之下，自當有知我之子雲，而不患其不之貴矣。如其不然，而徒以祿位之故，取重於當世，則比如無源之水，朝滿而夕除，雖欲其不朽而不可得也。（中略）其於文章，固不患其不能，然若以吾儒家正大之志業律之，則此特餘事耳小技耳。

10) 鄭宗魯，『立齋先生別集』卷9，附錄「言行錄」，嘗收錄少時書簡數幅，而其下記其年歲，又書小識，出而示忖曰少時意謂學問雖主義理，而若無文章，難以道達其意，遂於經傳及程朱書之外，諸子百家，無不熟讀，作爲文字，必使戛戛難讀，忽更思之，甚可笑也，吾儒家文法，何嘗有句讀艱險者乎。於是盡棄舊習，務從平實，此所以前後書不同也。

때 지은 글이 이 나무와 비교하여 닳지 않았다면 그치지 않아야 한다. 비록 여러 번 짓고 여러 차례 고치더라도 반드시 십분 합치된 뒤에 그만두어야 한다. 이러면 여러 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묘리는 저절로 생긴다.”<sup>11)</sup> 라고 했다. 문장이 실상을 그대로 전달해야 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 Ⅲ. 입재의 시세계 분석

#### 1. 도학세계의 형상화

입재 정종로는 13세 때 그의 작은아버지 鄭義模에게 수학하기 시작하여 평생 동안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는 30세 때 『논어』의 ‘三十而立’에서 立齋라고 自號하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이듬해 조정에서 學行有道之士를 천거하라고 할 때 고을 사람들이 그를 천거하려 할 정도로 이미 고을에서 입재의 학문적 명성이 높았다. 程朱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성인의 도를 추구한 그의 면모가 시에도 표출되었다.

입재는 致知의 목적이 장차 몸소 실천하기 위한 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몸소 실천하는 일을 힘쓰다 보면 치지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大學』의 ‘먼저 앎을 지극히 한 뒤에 뜻을 성실히 함’과 『중용』의 ‘덕성을 높이고 問學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말처럼 지행의 병행을 강조했다. 그래서 問學의 공부에 온힘을 쏟아 독서를 통해

11) 鄭宗魯, 『立齋先生別集』 卷9, 附錄「言行錄」, 先生嘗曰文章之妙, 多在於作, 因指庭前樹曰假令把筆形容此樹, 以所作視此樹, 不侔則不止, 雖屢作屢改, 必十分吻合, 然後乃已, 如是則不待屢篇, 而妙理自生. 誠錄



뜻을 궁구하고 사물을 통해 이치를 체험하여 정밀하게 사고하고 밝게 분별하여 실천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80년 동안 하루같이 학문에 전념한 그였지만 도의 경지에 도달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입재는 〈元日書懷〉에서 도학공부에 대한 회포를 6수로 지었다. 그 가운데 첫수를 보기로 한다.

道高力有限, 도는 높고 힘은 한계가 있는데,  
 年往少無時, 세월은 지나가 젊음이 없어졌네.  
 未學宜尼立, 공자의立志도 배우지 못하여,  
 空懷伯玉知, 헛되이 거백옥처럼 알아주기를 생각했네.<sup>12)</sup>

추구하고자 하는 도는 높은데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젊음은 온데 간데 사라져 흔적이 없다. 공자는 15세 때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 때 뜻을 세웠다고 했다. 학문에 뜻을 두어 15년간 덕을 닦고, 뜻을 지키는 공부에 전념하여 뜻이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입재는 공자의 입지조차 배우지 못한 채 부질없이 거백옥처럼 알아주기만을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그가 爲己之學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도학의 명성만을 바란 사실을 실토하는 말이다.

그는 도가 가까이 있는데도 먼 데서 구하여 공부가 정밀하지 못하고 부질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자책했다. 입재가 이론적으로 도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나 진정 도가 가까이 있음을 체험해 깨닫지 못하고 高遠한데서 평생 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다. 뒤늦게야 도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단지 자기가 터득하기만 할 뿐 어찌 남이 알아주

12)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 2, 「元日書懷 六首」.

기를 원하리(但能於己得, 何必願人知)<sup>13)</sup>라고 하여 진정으로 위기지학에 전념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입재는 “수많은 성현의 말씀, 보지 않은 적이 없었지(聖賢千萬語, 非不解看時)”라고 하면서 성현의 글 속에 담긴 무궁한 의미를 후학에게 깨우쳐 줄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sup>14)</sup> 그가 시를 통해 학문의 요체를 밝혀놓은 것도 도학의 정수를 후학들에게 깨우쳐주려는 책임감 속에서 나온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입재는 먼저 수양공부로 明德과 敬을 매우 강조하였다.

明德誰因發, 밝은 덕은 무엇을 통해 발할까,  
功深覺有時. 공부가 깊으면 깨달을 때 있으리.  
由來一貫妙, 본래 하나로 꿰는 묘도는,  
難向見聞知. 보고 듣는 것으로 알기 어렵지.<sup>15)</sup>

主敬心專處, 경을 주로 삼아 마음이 오롯한 곳에,  
研經理到時. 경서를 닦아 이치에 이를 때이지.  
忽然貫通妙, 홀연히 관통하는 묘리를,  
欲語有誰知. 말해주고 싶지만 누가 알 수 있을까.<sup>16)</sup>

『대학』의 삼강령 중에 첫 번째 덕목이 밝은 덕을 밝히는 明明德이다. 밝은 덕이란 주자의 말에 근거하면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서 虛靈하고 어둡지 않아 여러 가지 이치를 갖추어 모든 일에 응수할 수 있는 心德이다. 心의 體用을 아울러 말한 것으로 명덕은 수기치인의 가장 본원적인 문제이다. 학문의 본원인 명덕을 일관되게 발현하게 하는 도야말로 공부

13) 上同. 道邇曾求遠, 工疎浪度時, 但能於己得, 何必願人知,

14) 上同. 聖賢千萬語, 非不解看時, 別是無窮味, 惟當覺後知

15)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 2, 「元日書懷 六首」,

16) 上同. 「元日書懷 六首」,

깊어야 깨달을 수 있는 문제였다. ‘보고 듣는 것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결구는 곧 이를 두고 한 말로 自得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입재는 명덕을 위한 공부로 경을 제시하였다. 경을 통해 마음을 전일하게 하면서 경서를 통해 이치의 깨달음을 강조했다. 천인합일의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것도 경 공부를 통한 명덕에서 출발하며, 만사에 이치에 맞게 응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경 공부를 통한 명덕에 달려있다. 덕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바로 敬 공부이다. 경 공부를 통해 마음의 덕을 밝혀 관통하는 묘리를 깨우쳐야 하는데 이는 터득한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소용없다고 했다.

입재는 앞 시의 운자를 바꾸어 다시 한 번 知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學須要實踐, 배움은 실천이 중요하며,  
思貴有眞知, 생각은 참된 앎이 소중하지,  
待到灑然處, 마음이 맑은 경지에 이르러야,  
斯聞至道時, 지극한 도를 들으리.<sup>17)</sup>

배움은 단순히 스승에게 어떤 사실을 배우거나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까지 해야 완수가 된다. 생각하는 것은 참된 앎을 보존하고 이치를 궁구하여 아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眞知란 곧 결구에서 말하는 지극한 도를 아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재는 학문을 실천하고 참된 앎을 통해 마음이 맑은 경지에 이르러야 지극한 도를 들을 수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입재는 〈次月麓書堂韻〉<sup>18)</sup>의 시를 통해 유가의 핵심 공부에 대해 단계별로 읊었다. 이 시는 7수의 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재가 학문을 통

17) 上同. 「倒用前韻」.

18) 上同. 「次月麓書堂韻」.

해 깨달은 수기치인의 도를 달성할 수 있는 유학의 공부법이다. 다음의 인용한 시는 그 중 첫수이다.

聖門功業貴無隳, 성문의 공부는 지속함이 중요한데,  
發軔初宜正鵠知, 시작할 때 정곡을 알아야 마땅하리.  
體用會須眞見得, 체와 용을 참되게 터득해야 하며,  
明新元不假人爲, 명덕 신민은 남에게 빌리지도 못하지.  
切磋循序窮方進, 갈고 닦음을 순서 따라 궁구해야 진보하고,  
強勉加工樂有時, 힘써 공부해야 즐거운 때가 있으리.  
博約雙全方及物, 박문약례를 온전히 해야 외물에 미치니,  
治平從古大規模, 치국평천하가 옛 부터 큰 규범이었지.

입재가 유가에서 지향하는 궁극적인 학문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공부 순서와 학문의 규모를 제시하는 내용의 시이다. 함련에서는 體用과 명덕 신민에 대해 읊었다. 체용은 성리학의 근원적인 문제의 분석방법론으로 체용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명덕과 신민의 관계로 보면 명덕은 체이며 신민은 용이다. 결국 자신의 명덕이 선행될 때 신민도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을 빌려 할 수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경련에서는 순서에 따라 절차탁마의 수행과 공부에 힘써 노력하는 일에 대해 읊었다. 마지막 연에서는 博文約禮를 통해 치국평천하에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공부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공부의 근본은 본원의 함양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입재는 본원의 함양공부에 대해 시로 읊었다. 본원이란 性의 未發 상태를 말한다. 天理를 함양하고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길러서 마음이 천리에 부합하도록 하는 공부이다. 입재는 본원을 함양하는 방법에 대해 “상제가 굽어보아 항상 마주 대한 듯, 마음이 고요하여 함 없이 담담하네[上帝赫臨常若對, 靈臺虛寂澹無爲]”라고 제시했다. 이는 戒懼의 敬공부와 연결되는

것으로 마음이 경건하게 하여 사욕이 끼어들 수가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마음이 無爲의 고요한 본원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경련에서는 본원의 체용의 덕을 읊었는데, 즉 “밝고 삼엄한 만리가 여기에 갖추어졌고, 깊고 고요한 진원이 때로 발하네[昭森萬理具於此, 淵靜眞源發以時]”라고 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만리를 갖추고 있는 性이 드러나고 깊고 고요한 진원인 성이 때때로 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性의 未發과 已發의 상태를 말한 것으로 미발이 체라면 이발은 용이다. 그래서 결련에서는 “체가 서면서 용이 행함을 보게나, 중화 이룸이 천고의 확실한 법이네[試看用行由體立, 致中千古是明規]”라고 하여 함양공부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경지를 致中和에 두었다.

본원의 함양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慎獨이 중요하다. 사물이 마음에 접하여 性이 발해 情이 된다. 情이 발하면 마음이 개입하게 되는데 즉 思考를 하게 된다. 이 상태를 意라고 하는데 입재는 이때에 “자신의 마음이 성실함은 자신이 알지(自家心實自家知)”라고 하여 성실을 강조했다. 함련에서는 無自欺를 말했고 경련에서는 “그친 물이 움직일 때 기미를 살펴야 하고, 사사로움 싹트는 곳을 때때로 끊어야 하네[止水動來幾卽察, 私株萌處斷惟時]”라고 하여 情이 동할 때 기미를 살펴서 사사로움 마음을 끊어버려야 함을 비유적으로 읊었다. 미련에서는 참된 마음과 망령된 마음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格物 공부를 제시했다.<sup>19)</sup> 이는 격물을 통해 이치를 궁구해야 邪正의 구분에서 천리에 합치되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격물공부를 읊은 시에서는 노력하여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정미한 이치를 궁구해야 함을 말했다. 主一의 敬 공부를 통해 入道하는 방법론으로

19) 上同. 慎獨工夫慎莫墮, 自家心實自家知. 是心嫩若初嗽出, 這裏寧欺一髮爲. 止水動來幾卽察, 私株萌處斷惟時. 不知真妄如何辨, 爲有從前格物規.

끝을 맺었다.<sup>20)</sup>

이상 4수는 유가의 공부하는 순서를 차례대로 읊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3수에서 다섯째 수는 공부해야 하는 당위성을<sup>21)</sup>, 여섯째 수에서는 성신에 다다른 허령한 마음의 공용성을<sup>22)</sup>, 마지막 수에서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敬<sup>23)</sup>을 제시했다.

이처럼 후학들에게 공부법을 제시한 입재는 후학들이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 헛된 세월만 보낼까 근심했다. 〈次贈李國彬 漢容〉<sup>24)</sup>의 3수 중 첫수에서는 “대도는 푸른 하늘과 같은데 옆길로 썰까 제일 두렵네(大道如青天, 最怕有傍歧)”라고 했다. 경학을 근본으로 삼은 입재가 이를 버려두고 다른 길로 가서 허송세월할까 걱정하는 말이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歎我白髮翁, 나 백발의 늙은이는,  
虛度青春時. 헛되이 청춘을 보낸 것을 탄식하노라.  
光陰莫輕擲, 시간을 가벼이 보내지 말게,  
前鑑實在茲. 진실로 이 사람을 거울로 삼게나.<sup>25)</sup>

20) 上同. 格物工宜戒勿墮, 精微煞喫苦辛知. 不因縷析毫分去, 那得天開日朗爲. 絕學只緣窮理少, 盡心方見踐形時. 丁寧主一靡他意, 岡洛真開入道規.

21) 上同. 力弱資昏業易墮, 堪嗟難勉又難知. 困而不學民斯下, 進若無休聖可爲. 柔立豈非持久效, 愚明元自擇精時. 看來勇字尤親切, 千百加工傳有規.

22) 上同. 到竭吾才肯乍墮, 灑然非復見聞知. 聖神也是虛靈極, 功用何須倚著爲. 天下比心元自小, 大中無體只隨時. 萬殊一本分明處, 作止行看自合規.

23) 上同. 功程最怕半途墮, 力久終須一貫知. 銖理未窮明有欠, 毫私不克道難爲. 倘臻大寐如醒處, 會見靈丹換骨時. 伊洛當年真訣在, 丁寧敬字是弘規.

24) 鄭宗魯, 『立齋先生別集』 권 1, 「次贈李國彬 漢容」. 大道如青天, 最怕有傍歧, 經術是爲本, 文章乃其枝, 靈源乍不澄, 邪氣已干陲, 聖訓炳如丹, 後學寧違規, 至理在深造, 洞見方無疑, 蕉心日滋長, 蕉葉方葳蕤, 歎我白髮翁, 虛度青春時, 光陰莫輕擲, 前鑑實在茲,

25) 上同. 「次贈李國彬 漢容」.

입재 자신도 청춘을 허송세월한 것을 후회하여 탄식했다. 李漢容에게 젊은 청춘을 허비하고 있는 자신을 거울삼아 시간을 아껴 공부에 전념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진심으로 후학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도학에 뜻을 두고 노력하며 실천해온 삶이었기에 후학들에게 공부법을 제시하고 진력하도록 충고할 수가 있었다고 본다.

## 2. 白雲에 의탁한 시적 표상

한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연물 중 하나가 구름이다. 구름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시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물이지만 그 형태가 변화무쌍하여 계절별로, 시간별로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하고 구름 빛깔도 매우 다채로워 신비감을 더해준다. 이런 다양한 구름에 대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기도 하고 어떤 대상물이나 사상을 상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입재의 한시에서도 ‘白雲’이란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입재의 시에 사용된 ‘백운’은 특별하고도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백운’은 신선의 경계에 사는 자신의 거처를 상징한다. 〈記夢寄哲卿〉의 1연의 “아련한 산길이 꿈속에 비졌는데, 흰 구름 깊은 곳이 나의 집이라네. [山路依依夢裏斜, 白雲深處即吾家]”라는 시구에서 볼 수 있듯이 ‘백운’으로 자신의 거처를 나타냈다.

‘백운’은 시인이 선경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입재도 이런 의미로 ‘백운’을 사용하여 자신의 거처가 세속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실을 표현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望芝山有懷〉<sup>26)</su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6) 上同. 「望芝山有懷」.

翁家碧桃下, 노인의 집은 푸른 복숭아나무 아래 있고,  
我家白雲裏. 나의 집은 흰 구름 속에 있네.  
雲裏與桃下, 구름 속과 복숭아 나무아래 사이에는,  
盈盈隔一水. 넘실넘실 흐르는 시내가 있네.

작자는 흰 구름과 복숭아나무 두 소재를 빌려 자신과 상대방이 사는 곳을 그려냈다. 두 소재는 전통적으로 신선의 공간을 표상할 때 흔히 사용된다.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흰 구름을 통해 자신이 사는 곳이 마치 신선의 세계처럼 탈속의 경계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안빈낙도하는 생활을 읊은 〈疊步田家雜興八首和趙士威〉에서 “흰 구름은 세상 먼지를 끊고, 높은 봉우리는 멀리 성곽과 떨어져 있네〔白雲斷紅塵, 高峯隔遙郭〕”라는 시구가 이를 증명해준다.

전원에서 평생을 보낸 입재에게는 구름이 자신의 친구이자 즐거움의 대상이었다. 때로는 반가운 노년 친구를 백운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백운은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전원 속에 사는 입재에게는 더없는 완상의 대상물이었다. 입재는 이런 사실을 자주 시구에서 토로했다.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읊은 〈林居〉<sup>27)</sup>의 마지막 연을 보면 입재는 “저녁 무렵 먼 산을 바라보니, 흰 구름이 무심하게 떠가네〔向晚望遠岵, 白雲無心出〕”라고 했는데 그가 자주 구름을 감상했던 사실을 말해준다. 다음 〈雲水樂〉은 자연을 완상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읊은 시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石榻有白雲, 바위에 흰 구름 있어,  
怡悅不掃除. 즐기며 쓸어버리지 않고.  
楊園有流水, 버들 동산에 시내가 있어,

27) 上同. 林居少塵事, 閒坐忘愁寂. 時雨潤園蔬, 莖葉芳而密. 瘦妻鳴杼機, 麤布織欲畢. 衣食苟無乏, 不願種千橘. 得錢且沽酒, 有詩堪遣日. 暑月嘗野瓜, 爽味兼山蜜. 向晚望遠岵, 白雲無心出.



澹澹我心如. 담담함이 내 마음 같네.  
 白雲流水間. 흰 구름과 시냇물 사이를,  
 往來成幽道. 왕래하여 그윽한 길 났네.  
 盡日坐莓苔. 온종일 이끼에 앉아 있다가,  
 有時涉萍草. 때로 부평초를 건너기도 하지.

- 중략 -

茲景一何好. 이 경치 얼마나 좋은지,  
 令我眉常展. 언제나 내 눈을 즐겁게 하여.  
 相對兩不厭. 마주 대해도 둘 다 싫지 않아,  
 幽趣諒非淺. 그윽한 경취 진실로 깊네.  
 願言與二物. 원하건대 흰 구름과 시냇물을,  
 終年無相遠.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할 수 있으면.

5언 고시로 쓴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름과 시냇물을 감상하며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즐거움을 진솔하게 형용했다. 바위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기도 하고 시냇가에서 맑은 물을 감상하는 작자의 모습은 세속을 초탈한 그 자체이다. 입신출세나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자연을 벗하며 전원 속에 묻혀 담박하게 살아가는 작자의 삶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뿐이다. 구름과 물은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면서 마지막 구에서는 구름과 물을 죽을 때까지 즐길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다. 이처럼 구름은 곧 입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벗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입재는 백운으로 자신을 비유하기도 했는데 〈山中有白雲〉<sup>28)</sup>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山中有白雲, 산속에 흰 구름 있는데,  
 不會山外去. 일찍이 산 밖에 나가지 않았네.

28)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 2, 「山中有白雲」.

自起還自宿, 스스로 일어섰다가 도로 머무르니,  
幽人獨知處. 그윽한 사람은 홀로 알고 있으리.

이 시에서 말하는 '白雲'은 입재 자신을 의탁한 말이며 '幽人'은 상대방 즉 친구인 南宗伯을 가리킨 말이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산속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뜻을 남종백이 알아주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내용이다. 이 시를 본 남종백은 4수의 차운시를 짓고 비평과 함께 입재에게 보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의 '獨知處'에 대해 남종백은 입재의 自處가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하면서 작자의 의도와는 달리 시구를 해석했다. 즉 남종백은 '獨知處'의 주체인 '유인'을 입재로 파악했던 것이다. 입재는 흰 구름이 자신을 비유한 말이라고 해명했다.<sup>29)</sup>

입재는 다시 이 시에 차운하여 34수의 白雲詩를 지었다. 입재 자신이 평상시에 구름에 의탁하여 흥을 붙인 것을 모두 시로 표출했던 것이다. 각 시편마다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으면서 34편 전체에 의미망이 연결되어 있다. 의미망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수부터 5수까지는 백운을 찾는 작자의 모습을 그렸다. 1수와 2수는 백운인줄 알고 찾아다녔지만 나중에 보니 푸른 안개와 붉은 노을이었음을 말했다.<sup>30)</sup>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靑雲을 도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푸른 안개는 불교의 도를 상징하고 붉은 노을은 도가의 도를 상징한다.

29) 上同. 「南友宗伯愛吾白雲絕句, 次寄四首, 余復以其韻吟得三十餘首, 以示懷事, 并序」, 座下白雲絕句, 高古閒澹, 意態俱到, 第觀盛評, 以拙詩中獨知處三字, 爲涉於自處太高, 則僕本偶吟, 初無是意, 蓋以白雲自況而幽人, 如足下獨知其處云, 自不知者觀之, 此三字終似有病, 此趙月川宿鳥投林獨自知之句, 所以見正於老先生者也, 因座下之言而又知向所謂白雲者, 不但止於僕之取譬而已.

30) 上同. 我昔尋白雲, 誤隨碧靄去. 碧靄儘奇絕, 入看還失處. 我又尋白雲, 誤隨紫霞去. 紫霞邈難攀, 高捲忽迷處.

그렇다면 입재가 말하는 백운은 무엇을 의미할까. 3수에서 입재는 “흰구름 끝내 어디쯤 있을까, 너와 함께 가기로 맹세하네〔白雲竟何許，誓與爾同去〕”<sup>31)</sup>라고 하여 백운을 찾기로 맹세한다. 4수에서는 “발길을 돌려 동천으로 들어가니, 흰 구름이 곳곳에서 생기누나〔轉入洞天去，白雲生處處〕”<sup>32)</sup>라고 읊었다. 입재가 추구하는 도를 백운으로 표상했다고 볼 수 있다. 백운을 찾으려고 동천에 들어가서 백운이 생기는 모습을 본 것은 자신이 학문을 통해 도를 본 사실을 의미한다. 즉 입재가 見道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다음 5수를 보기로 한다.

始吾望白雲， 처음 흰 구름 바라보았는데,  
 邈爾難隨去. 멀어서 따라가기 어려워라.  
 回頭忽叫奇， 머리를 돌려 홀연히 기이함에 감탄하는데,  
 雲只在吾處. 구름은 내가 있는 곳에 있을 뿐이네.<sup>33)</sup>

기승에서는 도를 보았지만 得道의 경지가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름이 언제나 내 곁에 있듯이 도가 내 몸에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도를 見道에서 得道의 차원으로 승화하기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입재는 오묘한 도에 감탄하고 말았다.

6수부터 10수까지는 도의 오묘함에 감탄한 입재가 靑雲과 彩雲으로 상징하는 부귀를 좇지 않고 담담한 도를 추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1수에서 14수까지는 朝夕과 春夏秋冬의 구름의 변화에 대해 읊었다. 15수에서 18수까지는 입재가 좋아하는 구름의 모습에 대해 읊었다. 19수에서 25수까지는 사람에 따라 구름을 얻은 수준을 말했는데 곧 도를 터득

31) 上同. 白雲竟何許，誓與爾同去。徘徊盡日尋，乃在山深處。

32) 上同. 茲山深幾許，曾不崇朝去。轉入洞天去，白雲生處處。

33) 上同。

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유한 것이다. 26수부터 34수는 구름의 본체 즉 도의 본체에 대해 읊었다.

이처럼 입재의 한시에 나타나는 백운은 다양한 상징성이 있다. 백운이 때로는 자신의 거주하는 곳을 표상하기도 하고 삶을 즐겁게 하는 벗이기도 했다. 또한 입재 자신이 추구하는 도를 백운에 의탁하여 표현하기도 했다.

### 3. 산수 유람의 흥취와 사고

『입재집』을 보면 산수 유람시가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입재는 50세 이후에 주로 산수유람을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반드시 한시를 통해 기록을 남겼다. 그가 산수 유람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의 성품에서 기인한다. 본 장에서는 산수 유람에 대한 입재의 생각을 정리하고 산수 유람시에 나타난 흥취와 사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無適公自叙〉를 보면 입재의 遠遊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입재가 실제로 유람하고 난 이후에 남긴 기록이라기보다는 상상을 통해 원유했던 승지에 대한 기록이다. 입재는 60년 동안 한 곳에 살면서 굴원의 원유부를 외우고 주자의 원유시를 외우면서 널리 九州를 보고 대양을 모두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비록 몸은 갈 수 없었지만 마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상상하는 방법을 통해 遠遊를 즐겼다고 술회했다.

또한 동국을 가지고 말한다면 함경도의 백두산은 여진과 숙신의 경계에 웅거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산악의 조종이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일찍이 백두산 꼭대기에 훌쩍 올라가서 칠혹 같은 연못을 굽어보고 곁으로 연지봉을 보았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 구불구불 뺨은 산맥을 헤아린다면 평안도의 묘향산, 황해도의 구월산, 경기도의 삼각산, 충청도의 속리산, 전라도의 지리산, 경상도의 태백산, 강원도의 금강산이며, 또 한 줄기가 큰 바다를 뚫고 지

나가서 제주도의 한라산이 되었다. 큰 강은 두만강, 압록강, 임진강, 소양강, 양자강, 한수, 백마강, 낙동강 같은 따위가 모두 각자 명산의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줄기인데 종횡으로 각 도마다 웅진의 고을을 띠고 있다. 그러나 요컨대 모든 산과 물이 한양을 위해 손 모아 읍하는 듯 둘러싸고 있어서 첩첩 산악들과 넓은 시내 큰 여울, 비단을 엮고 수놓은 듯 들쭉날쭉 교차되어 금성당지의 튼튼한 성이 되었으니 진실로 우리나라의 보물이다. 무릇 이는 모두 내 마음이 마침 그렇게 한 것이다. …… 마음은 흔적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왕래하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지난번에 흔적이 있었다면 만이천봉이 어떠한 봉우리인데 내가 흔적을 없게 할 수 있겠는가.<sup>34)</sup>

이처럼 입재는 다른 사람의 시문을 통해 마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전국의 명승지뿐만 아니라 중국의 명승지까지도 원유했다. 다만 직접 유람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상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다녀온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기록을 통해 볼 때 입재가 산수 유람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컸으며 기회만 있으면 유람을 다녀왔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입재는 단산의 관어대, 삼산의 문장대, 한양의 남한산을 비롯하여 황간의 냉천, 관산의 회양, 청주의 화양동과 외선유동을 다녀왔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5)</sup> 1794년 음력 4월에 입재는 별장이 있는 선유동에 놀

34) 鄭宗魯, 『立齋先生別集』 卷4, 「無適公自叙」, 且以東國言之, 咸鏡之白頭山雄據女眞肅慎之界, 爲八路山岳之祖宗, 故此心嘗飄然上其絕頂, 俯瞰深黑之淵, 而傍睨驢脂之峯, 因歷數山脉之馳奔盤回於域中者, 如平安之妙香, 黃海之九月, 京畿之三角, 忠清之俗離, 全羅之智異, 慶尙之太白, 江原之金剛, 又一支從大洋中穿過爲濟州之漢拏, 而其大江則豆滿鴨綠臨津昭陽楊子漢水白馬洛東之屬, 皆發源流派於各路名山之谷, 而縱橫襟帶於各路雄鎮之邑, 然要之不論山與水, 皆爲我漢陽而拱揖環抱, 重岡疊嶂, 廣川巨瀨, 綺縮繡錯, 犬牙相制, 以轉成金湯之固, 信乎我東國之寶也. 凡此皆吾心之所適然, ……恨此心無迹, 人不見其往來耳, 向使有迹, 萬二千峯何峯而無我迹乎.

35) 上同. 蓋余身之所謂遠遊者, 惟東入丹山而上觀漁臺, 俯視萬里滄溟, 與天無極, 西入三山而上文藏臺, 俯視三南山水, 連陸無際, 北入漢都而上南漢山, 望見龍盤虎踞之勢, 聖子神孫之居據八域之中, 爲五京之最, 宮闕之壯麗, 城郭之雄偉, 府署之宏敞, 街市之紛華, 足以爲億

리오라고 벗 南宗伯의 초대를 받았다. 일찍이 문경의 산수가 매우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그렇지 않아도 한번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입재는 남종백의 아우 南朝伯과 막내아들 鄭象觀을 데리고 선유동에 찾아갔다. 입재 일행은 陽山에서 내외선유동, 파곳, 용유동을 거쳐 두릉에 들어갔다. 이 때 입재가 '谷'과 '獨'의 운자를 사용하여 곳곳의 명승지에 대한 감회를 읊어서 유람시 16편을 남겼다. 그 중에 첫 수가 주자시를 차운하여 양산 동구에서 감흥을 읊은 시인 〈陽山洞口, 口占次朱子雲谷雜詠第一絕韻〉<sup>36)</sup>이다.

暇日挈良朋, 한가한 날에 좋은 벗을 데리고,  
尋眞入深谷. 선경을 찾아 깊은 골짜기에 들어섰네.  
翳然林木下, 그늘진 숲 아래에서,  
散坐忘幽獨. 흠어져 앉으니 고독을 잊었네.

5언 고시의 짧은 시이지만 유람가는 도중에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는 모습과 작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초여름에 도보로 먼 여정을 가느라고 피곤에 지쳤을 때 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이 때에 세상의 모든 상념을 잊어버린 즐거움을 景情의 구성으로 전혀 꾸밈이 없이 담담하게 표현했다.

이처럼 〈夜遊巖〉<sup>37)</sup>, 〈曦陽峯〉<sup>38)</sup>, 〈陽山寺〉<sup>39)</sup>, 〈白雲臺〉<sup>40)</sup>, 〈靈槎石〉<sup>41)</sup>

萬年享有之國, 而鬱葱佳氣, 際天蟠地, 盖若與東海相埒, 此爲吾遠遊, 其外則黃澗之冷泉, 冠山之曦陽, 清州之華陽洞, 而其間內外仙遊洞, 亦筇鞋所及.

36)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 2, 「余聞聞喜山水多絕勝…」.

37) 上同. 明月白石灘, 徹夜響崖谷. 崔仙去不歸, 今我來遊獨.

38) 上同. 半空先得旭, 萬里臨陽谷. 嶠南衆石峯, 奇秀曦陽獨.

39) 上同. 伽藍創新羅, 千年此山谷. 莓苔衆碑文, 最古孤雲獨.

40) 上同. 白石瀉白水, 滢澈白雲谷. 此心亦虛白, 同爾惟我獨.

41) 上同. 若其不可泛, 胡爲乎谿谷. 我欲乘之去, 滄洲訪道獨.

등 대부분의 시들이 기승은 景으로, 전결은 情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같은 운자만을 사용하여 경관을 읊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시의 의경은 다양하게 설정되었는데 〈內外仙遊洞〉<sup>42)</sup>을 보기로 한다.

天作靈仙窟, 하늘이 영선굴을 만들고,  
分置內外谷. 내외 골짜기를 나누어 설치했네.  
萬物皆有對, 만물이 모두 상대가 있으니,  
名區直不獨. 명승지도 마땅히 하나가 아니겠지.

이 시도 경과 정의 내용 구성이다. 흔히 백두대간 버리미기재 북쪽인 괴산 쪽 선유동을 내선유동이라 하고 둔덕산 북쪽 문경쪽 선유동을 내선유동이라 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입재는 의경을 설정했는데 내외 선유동이 있는 이유를 만물이 상대가 있다는 음양의 논리로 풀이하였다. 산수에 대한 흥취를 즐기기도는 이학적인 사유 속에서 산수를 바라보고 해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듬해 1795년 윤 2월에 입재는 損齋 南漢朝 등과 함께 다시 속리산에 갔다. 여러 친구들과 시를 수창하면서 유람했는데 그의 문집 권3에 〈將遊俗離文瑞先到共待杜陵諸益 乙卯〉를 비롯하여 20여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 속리산 가는 도중에 멀리서 속리산을 바라보고 쓴 시가 〈望俗離次宗伯韻〉<sup>43)</sup>이다.

崎嶇歷盡亂山間, 칩칩 산속 험한 길을 다 지나니,  
遇著平蹊步暫閒. 평평한 길을 만나 걸음을 잠시 쉬었네.

42) 上同.

43) 前掲書, 권 3, 「望俗離次宗伯韻」.

忽見玉峯無數出, 갑자기 무수하게 나온 빼어난 봉우리가 보이니,  
催鞭征馬共歡顏. 말을 재촉하는데 모두 기쁜 얼굴빛이네.

입재 일행은 속리산을 찾아가기 위해 첩첩 산길을 걷는 도중에 평탄한 길을 만나 잠시 쉬었다.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빼어난 속리산 봉우리가 눈에 들어왔다. 아득했던 목적지가 눈에 보이자 말을 재촉하면서 기뻐하는 일행의 모습을 입재는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시로 서술했다. 그가 얼마나 속리산의 여행을 갈망하고 또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음을 반증해 준다.

이처럼 입재는 유람하면서 경치와 유적을 낱낱이 시로 남기고 있다. 시를 짓기도 했지만 유람을 다녀온 뒤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입재는 속리산을 여행할 때 친구들과 聯句를 지었는데 연구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일행들과 헤어졌다. 이런 아쉬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입재는 나중에 그 초고를 찾아와서 자신이 시를 지어서 빠진 경물과 흥취를 기록하여 남겨두기도 했다.<sup>44)</sup>

입재의 유람은 단순히 자연 경관을 보는데 그치지 않았다. 이학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기도 하여 자연 경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으면 시를 통해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대표적인 시가 龍遊洞에 대한 논란이다. 용유동은 괴암괴석이 많아 마치 용이 살면서 굽힌 자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종백이 실제로 용이 놀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물의 침식 때문이라는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하여 수십 구의 시를 지었다. 입재는 그의 견해에 일부 동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가지로 논

44)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 4, 「歲乙卯三月, 與損翁及諸友, 遊俗離, 既各賦詩記勝, 仍向冷泉, 又逐景聯句, 以志歷路諸景, 未及畢而散歸, 常耿耿在心, 今因叔璜覓其草來示, 遂追以卒篇」.



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여긴 그는 200구의 장편 고시를 지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시를 내용에 따라 대략 구분해보면 1구에서 18구까지는 용유동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19구에서 62구까지는 용유동의 수많은 괴석들이 바로 용이 움직이면서 저절로 패인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 중에 흔적의 원인을 추측하는 대목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歷歷盤屈痕, 또렷이 서린 흔적들,  
大小皆眞的. 크고 작은 자국이 모두 확실하네.  
大而囊與盅, 큰 단지만 한 큰 자국은,  
認是當脅腹. 옆구리 배가 부딪친 곳이며,  
小而釜與錡, 가마솥만한 작은 자국은,  
認是當趾蹠. 발자국인줄 알겠네.  
白爲淺下爪, 절구는 발톱이 살짝 굽힌 자국,  
槽爲深沒脊. 구유는 등 때문에 깊이 패였네.  
若其徹底坼, 바위 밑까지 갈라진 곳은,  
是自潭出入. 연못에서 지나다는 길.  
況其身所經, 하물며 몸이 지나는 곳과,  
與夫足所攖. 발로 굽힌 곳이라.  
石理皆細膩, 바위 결은 모두 가늘고 미끄러워,  
圓滑無稜角. 둥글둥글 모진 것이 없네.  
若非鱗甲痕, 비늘 껍질의 흔적이 아니라면,  
誰能任鍊削. 누가 단련하고 깎을 수 있으랴.<sup>45)</sup>

입재가 바위에 난 크고 작은 구멍들이 생긴 이유를 상상력을 발휘하여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 용의 발톱이 굽힌 자국, 등 때문에 패인 자

45)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 2, 「龍遊洞石形之詭怪, 南宗伯以爲非龍遊所致, 乃造化自然, 作辨破詩累十句以示我, 其言固不爲無見, 而余意天地間物理無所不有, 亦難以一槩論, 故反其意, 又作此詩奉寄」.

국, 옹구리가 부딪친 자국 등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 용유동이 실제로 용의 의해 굽힌 자국일 수 있음을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괴석이 물의 침식 속에서 이루어진 자연현상이지만 입재는 천지조화가 무궁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리해본 것이다.

이런 입재의 논리에 대해 남종백의 반론을 서술한 시구가 63구에서 72구까지이다. 용유동의 괴석이 용 때문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물의 침식작용 때문이라는 남종백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73구부터 192구까지는 남종백의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 사물의 이치를 모두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입재가 다양한 조화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顧惟天地間, 돌아보건대 천지간에,  
物理難盡識. 사물의 이치를 모두 알기 어렵지.  
鑠物莫如火, 물건을 태우는데 불이 제일이나,  
火鼠獨不鑠. 불쥐만 홀로 타지 않네.  
縮物莫如冰, 응축된 물건 중에 얼음이 제일이나,  
冰蠶獨不縮. 빙잠만 홀로 오그라들지 않으며,  
金鐵天下剛, 쇠는 천하에 제일 강해도,  
井犴還能食. 정한은 되리어 먹을 수 있으며,  
鹽鹵天下鹹, 소금은 천하에 제일 짜지만,  
橐駝還能喫. 낙타는 먹을 수 있네.  
貓洩利滲壤, 고양이 오줌은 땅에 잘 스며들어,  
尋丈透一瞥. 한 길도 한 순간에 투과하며,  
蟾肪利切玉, 두꺼비 기름은 옥을 자르는데 좋아서,  
所著皆成劈. 바르는 곳은 모두 자를 수 있네.  
象骨遇鼠破, 코끼리 뼈도 쥐가 파괴할 수 있으며,  
虎齒咀雞髀. 호랑이 이빨도 닭에 쪼여 뚫리네.<sup>46)</sup>

46)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 2, 「龍遊洞石形之詭怪, 南宗伯以爲非龍遊所致, 乃造化自然, 作辨破詩累十句以示我, 其言固不爲無見, 而余意天地間物理無所不有, 亦難以一槩論, 故反其意, 又作此詩奉寄」.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입재가 오묘한 조화의 사례를 일일이 들어 서술한 것은 용유동의 기암괴석이 물의 침식작용만으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즉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천지의 무궁한 조화 속에서 용유동의 풍광도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입재의 학식이 매우 넓고 또 이학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93구에서 마지막 구까지는 결론에 해당한다. 결국 입재는 용유동의 풍광이 용 때문에 형성되었더라도 결국 조화가 하는 일로 귀결시켰다. 입재는 “대개 조화의 묘는 모두 오적에서 나오는데, 비록 동물이 하더라도, 조화가 하는 일이지. 용이 지나서 바위의 모습이 변한 것도, 역시 그 이치 중 하나이네[大抵造化妙, 盡由五賊出. 雖動物所爲, 亦造化所設. 龍過石變形, 是亦其理—]”라고 결론을 맺었다. 입재가 산수를 유람하면서 때로는 이학적인 관점에서 산수를 바라보고 논란을 벌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전원에서의 삶과 기록

입재는 평생 동안 전원 속에서 지낸 인물이다. 관직에 나간 기간이 1년도 채 안 되므로 일생 동안 전원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전원에서 은거에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세상과의 인연을 끊은 것도 아니고 잊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전원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도를 탐구하며 한가로운 삶을 즐기기를 좋아하였다.

입재의 가문은 10대를 내려오는 동안 다섯 번 이사를 했지만 한 번도 상주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입재에게는 주위를 둘러보아도 생소한 사물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모두 오래전부터 함께 놀던 사람이었다.<sup>47)</sup>

47)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 1, 「卜居」, 十世五遷居, 不出此商州, 覽物無生面, 逢人盡

번다한 도심에서 세속적인 삶을 피하여 산속으로 찾아들어갔지만 전원에서 사는 삶이란 변화가 없는 한적한 삶이다. 어찌 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답답한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입재는 그런 한적한 일상생활을 즐기는 법을 알았다.

萬事幽居總不關, 조용히 살며 모든 일을 상관하지 않으니,  
 此身贏得一生閒. 이 몸이 일생동안 한가로움 남아도네.  
 樽中綠酒長春色, 술동이 속 술은 봄빛을 띠고,  
 牕外青山太古顏. 창밖에 푸른 산은 태고의 모습.  
 瑤瑟獨臨流水奏, 흐르는 물가에서 홀로 비파를 연주하며,  
 藜筇時與白雲還. 때로 지팡이 짚고 흰 구름과 함께 돌아오네.  
 却看老鷓棲高壁, 높은 벼랑에 사는 늙은 학을 보니,  
 未信仙人在別巖. 신선이 다른 세계에 산다고 믿지 못하리.<sup>48)</sup>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고 산골에 조용히 사는 입재에게는 한가로움의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좋아하는 술도 익고 창밖의 푸른 산은 세속이 전혀 침범하지 않은 태고적 모습 그대로이다. 함련은 자신이 사는 생활공간의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소박하게 표현했지만 독자에게 한적함을 느끼게 한다. 경련은 한가하게 지내는 자신의 생활 모습을 서술한 대목이다. 물가에서 비파를 연주하고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 산책하며 백운과 함께 돌아오는 입재의 모습은 마치 신선 같다. 미련에서는 높은 벼랑에 사는 늙은 학을 보고 자신이 사는 곳이 바로 신선세계임을 확신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처럼 전원의 삶을 읊은 시에는 세상에 대한 갈등과 원망이 없으며

舊遊, 所息取容膝, 水舍狹於舟, 爨室任小奚, 逐日樵故丘, 飢采碧山薇, 渴飲清溪流, 傳家自有業, 榮樂非吾求,

48)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 1, 「偶題」.

명성이나 이익을 좇는 세속적인 욕구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작자의 일상이 가식 없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자취 거두어 세상 영화 사양하니, 평생 동안 전경을 실컷 보네〔斂跡謝世榮，窮年飽仙景〕’<sup>49)</sup>라는 그의 말처럼 세속의 부귀공명이나 이욕의 갈등에서 초탈하고 전원을 즐기는 입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입재 시 중에는 〈卽景〉, 〈卽事〉, 〈雨中卽景〉<sup>50)</sup>처럼 주변 환경 속에서 우연히 보이는 사물 그대로의 경치를 읊은 시가 많다. 일부러 시를 지으려고 마음먹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한적한 일상생활 속에서 감흥이 일 때마다 보이는 경물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여 무료함을 달랠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저녁 경치를 묘사한 〈夕煙〉<sup>51)</sup>이란 시이다.

向夕微微起屋頭，저물녘에 모락모락 지붕위로 피어나서，  
隨風細細度溪流，바람 따라 가느다랗게 시내를 건너네，  
解添遠岫嵐陰重，먼 산에서 흩어져 쌓인 구름에 더하니，  
忽作斜陽彩翠浮，갑자기 석양에 고운 비취가 떠있네。

해질녘에 인가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모습은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농촌 경치 중 하나이다. 이 시는 景景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승은 저녁 무렵에 지붕위로 피어나는 연기가 바람 따라 시내 건너로 날아가는 모습이다. 전결에서는 작자가 연기가 사라진 먼 산 위에 펼쳐진 오색 노을의 풍경을 그렸다. 기승이 연기의 動態를 표현한 것이라면 전결은 연기의 靜態를 서술한 것이다. 즉 입재는 동정의 서술기법을 통해 자칫 수사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면서 독자에게 고요하고 한가로운 저녁 분위기를 생생하

49) 上同, 「有感偶書」.

50) 前揭書, 권5.

51) 前揭書, 권1.

게 전해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처럼 입재는 보이는 경물을 생동감 있게 사실 그대로 서술하는데 주력했다. 따라서 그의 시에서는 아름답게 꾸미려 하거나 용사를 정밀하게 하는 식의 수사기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주변에 보이는 자연물이나 일상 생활공간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경물을 사실 그대로 그려내서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의 수사가 돋보인다. 역지로 사물을 아름답게 수식하거나 과장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다음 시에서도 이런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睡起坐南窗, 자다 일어나서 남쪽 창가에 앉으니,  
 悠然意自悅. 유연히 마음이 기쁘네.  
 靑山淡靄生, 청산에 맑은 구름이 일고,  
 靑空浮雲滅. 푸른 하늘엔 뜬 구름이 없어지네.  
 幽竹滿一園, 그윽한 대나무 정원에 가득차,  
 爽籟時自發. 시원한 바람소리 때때로 일어나고.  
 榮花映疎籬, 나물 꽃이 성긴 울타리에 비치는데,  
 芬芳猶未歇. 향기는 오히려 그치지 않네.  
 淸泠澗下水, 시원하게 흘러가는 계곡 물,  
 皎潔松間月. 맑은 소나무 사이에 뜬 달.  
 引觴爲一醉, 술잔을 들어 한번 취하며,  
 樂此好時節. 이런 좋은 시절을 즐기네.<sup>52)</sup>

잠을 푼 자고나서 기분이 좋은 작자가 남쪽 창가에 앉아 보이는 풍경을 그대로 서술한 시이다. 3·4구는 창가에서 보이는 원경을 묘사했는데 청산과 하늘의 풍경을 담았다. 5구부터 8구까지는 근경의 모습이다. 5·6구는 정원에 가득찬 대나무에 이는 바람소리를 읊었는데 시각과 청각을 통한

52) 上同. 「睡起」.

묘사이다. 7·8구는 울타리 사이로 비치는 나물 꽃과 그 꽃에서 풍기는 향기를 말했는데 곧 시각과 후각을 통한 묘사이다. 9·10구는 계곡과 달 즉, 上下 또는晝夜의 경치를 서술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자연 환경 속에 사는 작자는 술을 마시며 좋은 시절을 즐길 만 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처럼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생활공간의 모습을 공감각적인 서술을 통해 전원이 무료한 공간이 아닌 즐길 거리가 풍족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전원의 흥취에 빠져든 작자는 자연스럽게 담담한 수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독자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해주고 있다.

한편 입재는 전원생활 속에서 보이는 농촌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다. 농촌 모습을 그린 대표적인 시로는 〈田家雜興〉<sup>53)</sup> 7수를 비롯하여 〈田家雜謠〉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시는 1779년 입재가 44세 때에 함창 검호에서 살 때 지은 시로 보인다. 趙虎然이 이 시를 차운하여 보내자 입재는 〈疊步田家雜興八首和趙士威 虎然〉<sup>54)</sup>이란 제목으로 16수를 지었다.

〈田家雜謠〉는 구체적인 창작시기를 알 수 없다. 이 시는 총 13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동안의 농촌 생활상을 기록했다. 1수는 “북쪽 마을만 일찍 밭갈이를 하려고, 튼튼한 소를 양전에 먼저 시험해보네〔北里上農耕獨早，健牛先試向陽田〕”<sup>55)</sup>라고 하여 아직 추위가 가지 않았는데 일찍 밭갈이를 시작하려고 소와 쟁기를 정비하는 정월의 농촌 풍경을 그렸다. 2수에서는 2월에 빠꾸기 소리를 듣고는 짜던 짚신을 놔두고 소를 끌고서 서둘러 논으로 달려가는 광경을 노래했다.<sup>56)</sup> 다음은 보리타작을 하고 술 마시는 광경을 읊은 시이다.

53) 前揭書, 권1, 12쪽.

54) 前揭書, 권 2, 13쪽.

55) 前揭書, 권 1, 「田家雜謠」.

56) 上同. 忽聞布穀舍南啼, 忙擲腰間半織鞋. 二月春耕時已晏, 叱牛催向水西堤.

打麥仍餘酒數瓶, 보리 타작에 술 몇 병을 외상으로 사서  
 槐陰環坐語村丁. 느티나무 그늘에 둘러앉아 장정들이 얘기하네  
 且須及此登場飲, 모름지기 타작마당에서 술 마시면  
 明日輸官未必贏. 내일 관가에 바칠 곡식 없으리<sup>57)</sup>

시골 장정들이 일하면서 휴식시간에 걸걸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광경은 예전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기승은 보리타작하고 몇몇 장정들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둘러앉아 외상으로 술을 마시면서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입재는 곡식으로 외상값을 갚아야 하는데 관가에 바칠 곡식이 없을까 걱정하는 말로 끝을 맺는다.

이 시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입재가 동네 어른으로서 젊은 장정들이 지나치게 술을 마실까 걱정하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보다는 외상값 갚고 관가에 바치고 나면 남은 곡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시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 밖의 시에서도 추수하는 모습, 식량이 부족한 가난한 농가의 모습, 나무 팔아 살림하는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이처럼 입재는 시를 통해 일생동안 산골에서 거주하면서 전원에서 이는 흥취와 농촌의 생활상을 담담한 수사를 통해 實景을 기록하였다. 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경물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즐기며 부귀공명이나 이욕 등 세속적인 관심에서 초탈하고 있었다. 또한 농촌의 생활상을 기록한 시는 당시 농촌의 생활상과 실정을 알게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백성과 동고동락하려는 선비로서의 면모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었다.

---

57) 上同.



#### IV. 결 론

조선후기 영남 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쳐준 입재는 한시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그는 일생동안 산촌에 거주하면서 학문에 전념하여 부귀 공명을 초탈하고 전원을 즐기며 살았다. 입재의 문학사상은 도본문말론의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도가 실린 문장을 중시한 그는 문학의 기초를 학문에 두고 있었다. 입재는 뜻의 전달이라는 문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사실주의적 서술을 강조하였다.

입재 시를 분석했는데 첫 장에서는 먼저 도학세계를 시로 형상화한 면을 밝혔다. 성인의 도를 추구하여 위기지학에 충실한 입재는 후학들에게 도를 전달할 책임감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한시를 통해 후학들에게 학문에 힘쓰는 次第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입재는 本源의 涵養, 慎獨, 格物의 공부 순서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어서 입재의 한시에 등장하는 '白雲'의 시적 표상에 대해 밝혔다. 입재 시에 나타난 백운은 감상의 대상물이면서 다양하게 상징하였다. 즉, 백운은 탈속의 경계에 있는 자신의 거처를 상징하기도 했으며 자신은 물론 친구를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백운시 34수를 분석하여 입재가 구름을 통해 다양한 의미망을 형성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도의 세계를 비유적으로 상징한 사실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입재의 유람시를 분석하였다. 입재는 평소에 여행기록을 읽으면서 상상으로 원유를 즐기곤 했다. 산수 유람을 좋아한 입재는 승지를 두루 유람하면서 많은 유람시를 남기고 있었다. 이 시를 분석한 결과 입재 시가 산수를 실경 그대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뜻을 붙이는 방식으로 쓰인 사실을 밝혔다. 또한 입재가 이학적 사유 속에서 산수를 바라보고 논란을 벌인 사실도 시의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마지막에는 입재 시에 나타난 전원에서의 삶과 기록에 대해 살펴보았다. 입재의 전원시에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강호자연에서 도를 즐기는 초탈한 선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었다. 입재는 감흥이 일면 담박한 수사로 경치를 읊기도 했으며 농촌의 생활상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입재 시에는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입재 시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본고를 마칠까 한다.

첫째, 형식면에서는 장편 또는 연작 형태의 고시체의 창작이 많은 점이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서술하는 작자의 성향에 근체시보다는 고시체가 더욱 유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사 면에서 고사의 사용이 드물고 조탁이나 화려한 수식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입재 시는 역지로 꾸민 흔적이 드물고 보고 느낀 점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서술하여 정밀한 기교보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담박한 수사가 돋보였다.

셋째, 내용면에서는 白雲의 시적 표상성을 들 수 있다. 입재는 구름의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뜻을 표출하는데 활용하였다. 구름이 단순한 감상의 대상물이 아니라 자아와 도의 세계를 상징하는 존재로 설정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53책, 254책. 2001.  
 朴英鎬, 「立齋 鄭宗魯의 삶과 文學 世界」, 『동방한문학』 25. 2002. 7-41쪽.  
 劉明鐘, 「立齋 鄭宗魯의 太極動靜說」, 『朝鮮後期性理學』, 대구: 이문출판사, 1985.  
 李世東, 「立齋 鄭宗魯의 經學과 經學觀」, 『동방한문학』 25. 2002. 81-107쪽.  
 崔在穆, 「立齋 鄭宗魯의 생애, 성리사상, 문제의식」, 『동방한문학』 25. 2002.

Abstract
----------

## A Study on Sino-Korean Poetry of Ipjae(立齋) Jeong Jong-no(鄭宗魯)

Lee, Hyang-Bae

Ipjae Jeong Jong-no who had a great impact on the Confucian School of Yeongnam in late Joseon Period left magnificent works in Sino-Korean poetry. He set great store by letters carrying 'the way' and his literature was grounded on scholarship. He recognized the utility of good letters in communication of meaning and stressed realist description.

Ipjae felt responsible for getting 'the way' across to young students, since he was faithfully committed to *wigjihak* ("energy-oriented universal learning") in pursuit of the way of a saint. So, he showed to his students the steps to take in scholarly pursuit: cultivating the fundamentals, sophrosyne and scientific learning.

*Baekun* ('white cloud') that appears in Ipjae's poetry is not just an object of literary appreciation but also a symbol of diverse things. It configures the poet's dwelling sitting on the border between the holy and the secular and it also represents himself as well as his alter ego. An analysis of his thirty-four *baekun* poems shows that the poet created a network of various meanings through cloud, symbolizing the dimension of 'the way' he was in pursuit of.

Ipjae would delight in imaginary amusement while reading travelogues. As Ipjae loved to travel around mountains and rivers, he left many sightseeing poems while touring around sights. He described the real landscape of mountains and rivers in the poems with his own meaning added to. Besides, Ipjae observed mountains and rivers and argued through thinking of natural sciences.

His pastoral poems showed well the portrait of Ipjae as a Korean classical scholar who enjoyed 'the way' in Mother nature, away from secular life. When inspired, Ipjae would recite plain rhetoric in poems lauding landscape and record bona-fide rural life.

Key Word

Ipjae Jeong Jong-no, realist description, cultivating the fundamentals, sophrosyne, scientific learning, the way, white cloud, pastoral, rural life, real landscape, secular, symbol

- 논문투고일 : 2011.12.16 심사완료일 : 2012.2.4 게재결정일 : 2012.2.10